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⑰ 선리의 탐구와 전개



▶ 한줄 요약
고려시대 선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리의 천착은 중국 선종오가의 선리가 고려에서도 수용 · 전개됐음을 알수 있다.

中선종오가, 고려 선법에 수용·전개

중국선종에서 출현한 선종오가의 선리가 고려시대 선법에 수용됨으로써 그 변용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고려시대 선 문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선종오가로서 가장 먼저 수용된 위앙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원상법(圓相法)과 관련된 법어가 정리되어 저술로 출현하였다. 곧 지겸(志謙, 1145~1229)이 1219년에 집성한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이 그것이다. 원상과 관련된 기연어구에 대한 법어를 선어록에서 발췌한 것인데,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목암 선경(睦庵善卿, 12세기 전후)에 이르기까지 46명 선사들의 법어 170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직접 원상의 그림이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실제로 원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법어의 내용이 원상과 관련된 것을 수록하고 있다. 특별히 종파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에 걸쳐서 채록하였는데, 특히 신라의 요오 순지(了悟順之, 807~883) 화상이 제시한 원상법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위앙종풍이 비교적 크게 전개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겸의 〈종문원상집〉은 고려에서 위앙종풍의 선리가 재발견되어 전개됨으로써 중국 위앙종풍의 선리가 고려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문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頙, 1206~?)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선문강요집〉은 대부분 임제종지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지만, 그 후반부에서 청산과 구름에 대한 '산운편(山雲篇)' 및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운문삼구(雲門三句)'에 대하여 그 선리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산운편'에서는 백운자(白雲子)가 청산수(靑山叟)에게 질문하고 청산수가 백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백운자가 질문한 운문삼구에 대하여 청산수는, 운문삼구야말로 첫째는 체구(體句)이고, 둘째는 용구(用句)이며, 셋째는 체용구(體用句)라고 답한다. 또한 운문의 제자인 원명연밀(圓明緣密, 德山緣密)은 삼구 가운데 목기수량(目機銖兩)과 불섭춘연(不涉春緣)을 묶어서 수파축랑(隨波逐浪)과 절단중류(絕斷衆流)로 삼은 것이지 일찍이 그것을 변역(變易)시킨 것은 아니며, 또한 절단중류를 가지고 그것을 함개건곤(函盖乾坤) 앞에다 내놓고 천중(天中)과 일촉(一鏃) 곧 처음과 나중의 두 구는 임시로 붙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나아가서 원명 연밀의 제자인 보안도(普眼道)는 그 삼구를 게송으로 말하여 처음은 함개건곤이고 중간은 절단중류이며 나중은 수파축랑의 순서로 나열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운문삼구'에 대하여, 운문에게는 비록 이 운문삼구라는 말이 있지만 일찍이 삼구라는 명칭을 내세운 적이 없었는데, 그 적자인 원명 연밀이 처음으로 운문삼구라는 명칭을 내세워 첫째는 절단중류이고, 둘째는 수파축랑이며, 셋째는 함개건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덕산의 법사인 보안도 선사가 삼구라는 용어로 인하여 각각에 따라서 게송을 붙이고, 또한 별치일구(別置一句)를 내세웠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일촉파삼관(一鏃破三關)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반조의 지혜로써 일촉(一鏃)을 삼는 경우이다. 만약 진실에 근거하여 반조할 때라면 삼(三)이니 일(一)이니 하는 견해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설할 때는 삼이라는 명자(名字)가 있지만, 반조할 때는 삼이니 일이니 하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둘째는 삼구중일구(三句中一句)를 살펴보면 곧 매 구마다 정해진 차제가 없어서 하나를 들면 전체가 수렴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모든 대대(待對)를 단절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별치일구를 살펴보면 곧 삼관(三關)의 시설조차도 자연히 소멸된다.

이와 같은 운문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이후로 그다지 주목되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후기에 선리논쟁의 과정에서 백파긍선(白坡亙璇, 1767~1852)의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조동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로부터 출현한 조동오위(曹洞五位)의 선리가 주목된다. 조동오위는 조동종의 종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종의 수증관에 대하여 납자가 수행과 교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하의 단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행과 교화의 입장이 상호 작용하는 차원에서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거기에 철학적인 이치를 가미하여 전개한 선리이다. 이후로 선종에서 점차 널리 보급됨으로써 조동종뿐만 아니라 임제종에서도 원용하여 크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본래의 정통적인 조동오위로부터 변형된 오위가 출현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



법안종 개산조 법안 문익 선사. 사진제공=정운 스님

위앙종풍 선리 고려 지속적 수용

운문종 백파 〈선문수경〉서 언급

조동오위, 조동종종지 핵심 내용

임제종 선리 '임제삼구' 중심전개

과 응용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위 가운데 제일위 정중편(正中偏)은 순수한 개인의 수행 측면으로부터 이타의 교화 행위로 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이위 편중정(偏中正)은 정중편과 반대로 교화 행위로부터 자리의 수행 측면으로 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삼위 정중래(正中來)는 순수한 자리의 수행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제사위 편중지(偏中至)는 제삼위와 반대로 온전히 이타의 교화행에 전념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제오위 겸중도(兼中倒)는 자리의 수행과 이타의 교화를 아울러 실천하는 측면으로 수행과 교화의 융합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이것이 소위 정통의 조동오위이다. 정통의 조동오위에서는 이들 오위의 구조에 대하여 제일과 제이를 대구(對句)로 삼고, 제삼과 제사를 대구로 삼으며, 제일과 제이는 다시 제삼과 제사와 대구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의 제오의 겸중도는 이들 전체를 포함하여 자리의 수행과 이타의 교화를 자유자재하게 운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까닭에 오위의 중심은 제오 겸중도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의 조동종 및 대부분의 임제종에서는 조동오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제사위 편중지의 용어를 겸중지(兼中至)로 바꾸고, 전체적인 구조를 제일과 제이가 상대를 이루고, 제사와 제오가 상대를 이루며, 다시 제일과 제이는 제사와 제오와 대구를 이루고, 제삼의 정중래가 그 중심에 위치한 까닭에 정중래가 오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정통의 조동오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 논쟁이 고려에도 전승되었다. 이에 대하여 가지산문의 보각 일연(普覺一然, 1206~1289)은 1260년에 자신이 서문을 붙이고, 몇몇 조동선자의 견해 및 일연 자신의 주해를 가미하여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를 저술함으로써 그 논란에 대하여 정통의 조동오위를 옹호하였다. 거기에서 일연은 제삼위 정중래중심의 주장을 비판하고 제오위 겸중도중심의 주장을 정통으로 내세움으로써 조동종의 선리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서 일연의 입장은 조동종지를 중심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오위사상을 확립함으로써 이후로 일본 선종의 조동오위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편조동오위〉에서 보여준 일연의 견해는 조동종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고려선법에서 조동종 선리의 위상에 대하여 짐작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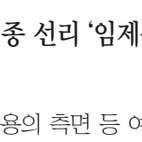
임제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선문강요집〉에서 임제삼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청풍장로와 호월상인과 벽암노숙의 세 사람을 상징하는 '삼성장(三聖章)'에서는 삼구와 삼현에 대한 선리를 논의하고, 호월선객과 청풍법사의 두 사람을 상징하는 '이현화(二賢話)'에서는 앞의 '삼성장'의 연장으로서 삼구(三句)와 삼현(三玄)과 삼요(三要)에 대한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하여 선리를 논의하며, 다음의 '제이편(第二篇)'은 '이현화'의 부차적인 설명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자신을 우부(愚夫)라고 자칭하는 '일우설(一愚說)'에서는 임제삼구를 비롯하여 삼구와 사조용(四照用)의 연관 등에 대하여 일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로써 삼상과 이현과 일우로 이어지는 이들 관계는 셋과 둘과 하나로 통하는 관계이다. 이를테면 '삼성장'에서는 청풍장로의 견해로는 구(句)와 현(玄과) 요(要)가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하의 '이현화'에서 청풍법사의 견해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같고 다름이 없기도 하다고 말하고, '일우설'에서 일우의 견해로는 구와 현과 요가 명연(冥然)하여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논점의 차이는 '삼성장'의 설명이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인데, 결국 그 차이점이란 '삼성장'의 경우에는 삼자에 대하여 교화를 위한 구조적인 관계로 파악한 것이고,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경우에는 삼자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방편으로 제시된 기관(機關)의 관계로 파악한 까닭에 연유한 것일 뿐이다. 이에 '이현화'에서 청풍법사는 구와 현과 요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같고 다름이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삼성장'과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견해는 임제삼구에 대한 이해의 접근방식에서 반드시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노출시켜주고 있다.

법안종의 선리는 중국선종에서부터 특별한 하나로 전승되기보다는 다양하게 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법안종은 선종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면서도 화엄(華嚴)의 교학 측면을 다대하게 수용하였는가 하면, 유식(唯識)과 정토(淨土)와 천태(天台)까지도 크게 수용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조류에 부응하여 정치와 결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법안종은 일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흘러감으로써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수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발전을 구가함으로써 고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법안종풍이 풍미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출현시킨 것은 고려에서도 크게 주목되어 〈전등록(傳燈錄)〉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경덕전등록〉을 절요한 성격으로 고려 선종에서 〈전등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선자들에 대한 보입(補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전등의 인식에 대한 한계성을 노출시켜주고 있다. 이후 조선 초기에 각훈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비롯하여 숭묵(崇默)의 〈통록촬요(通錄撮要)〉 등이 출현하게 된 점은 그 고무적인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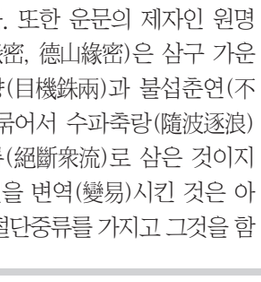
이처럼 고려시대 선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선리의 천착은 중국의 선종오가 전체에 걸친 선리의 이해가 고려에서도 수용되고 나름대로 전개됨으로써 적어도 선리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종파에 대한 선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합장
총무원장 동진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